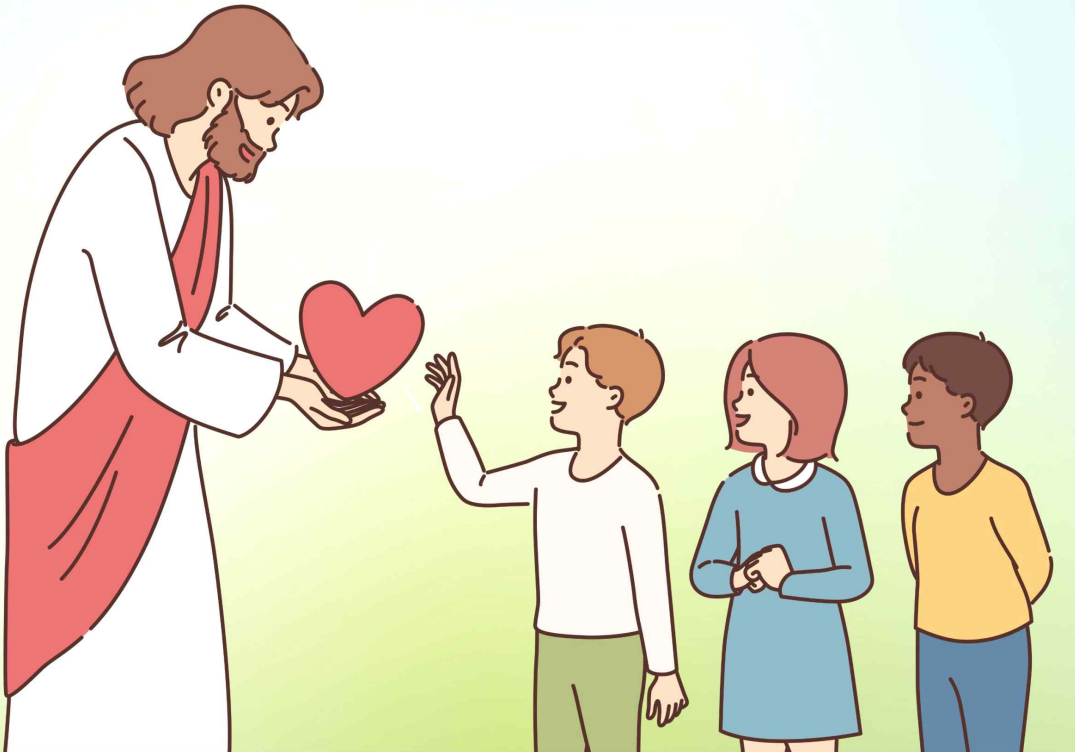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성경이야기

여러분은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누구에게 물어보나요? 숙제를 어떻게 할지, 친구와 다툰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물어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성을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싸우러 가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어요.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 번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고, 다윗은 순종하여 그일라로 가서 백성들을 구해 주었어요. 그 후 사울 왕은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로 내려오려 했어요.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알려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은 위험을 피하여 안전하게 떠날 수 있었어요. 다윗이 특별했던 이유는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위험 속에서도 지켜 주셨어요.

우리도 매일 선택하며 살아가요. 공부할 때, 친구를 대할 때,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내 생각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예요. 함께 외쳐볼까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볼래요!”

